

민주 전남지사 후보 '깜깜이 경선'

1차 경선 D-2 ... TV토론 밤 11시 단 한차례 형식적으로 열려
경선이 곧 본선인데 공약·역량 검증 시간 부족 '직함 경선' 우려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경선이 이를 앞
으로 다가왔지만, 경선 기간이 짧은 데다
후보 간 상호검증을 위한 TV토론회도 한
차례만 형식적으로 열려 사실상 '깜깜이
경선'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민주당의 경
선이 곧 본선'으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민
주당 경선 후보들을 검증할 시간이 부족해
후보자 직함만 듣고 여론조사에 답하는
'직함 경선'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지역 유권자들은 경선 후보들이
내세운 주요 공약과 전남에 대한 기여도,
미래비전 등을 통해 이들이 전남의 미래
를 이끌어 갈 역량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

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지역정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일 김영록·신정훈·장만채(가나나 순) 예
비후보 3명을 전남지사 경선 후보로 확정
한 뒤 오는 13일~15일까지 1차 경선에 돌
입한다. 경선 후보 확정 후 열흘만에 경선
을 치르는 셈이다.

경선 기간이 열흘에 불과한데도, 이 기
간 중 후보 간 상호 검증을 위한 당내 토론
회도 없이 TV토론회만 단 한 차례 열린
다. TV토론회마저도 1차 경선 시작일인
13일 전날 밤 11시에 진행되면서 형식적인
토론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당 경선 후보 3명 모두가 뒤늦게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후보 검
증하는 데 더욱 애를 먹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신정훈 예비후보는 각각 농림부
장관과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직을 지낸달
12일과 14일 사퇴하고 뒤늦게 출마를 선
언했고, 장만채 예비후보는 입당 문제로
논란이 일면서 지난달 30일 입당과 동시
에 출마를 선언했다.

전남지역은 22개 시·군으로 구성된 후
보들이 하루에 1곳의 시·군을 돌며 선거
운동을 하기도 벅거운 것이 현실이라는 점
을 감안하면, 후보들이 각 지역에 얼굴 알
릴 시간도 부족하고 충분한 정견 발표 시
간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선 기간을
늘리거나 후보 상호 간 토론회라도 수 차
레 열어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후보 검증
시간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은 관리당원 ARS

투표(50%)+안심번호선거인단 ARS 투표
(50%)경선으로 치러진다. 이 때문에 일반
유권자들과 관리당원들은 후보 경력이나
직함에만 의존해 경선 투표에 임할 가능성
이 크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
로 인해 일부 후보들 간에는 '문심(文心)
' 공방이 벌어지는 등 후보 경력과 직함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다.

아울러 각 후보들은 22개 시·군의 관리
당원과 조직을 흡수하는데 전력을 기울 수
밖에 없어 후보와 유권자들 간 직접적인
소통은 뒷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전남 일부 지역에는
명함 한 장 뿌리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것"이라며 "촉촉한 그물망 검증이 쉽지
않아 깜깜이 투표를 불가피하고 여자하면
인기투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장 경선 접전지 광산구 민심을 잡아라

민주 경선 일주일 앞 ... 강기정·양향자·이용섭 경쟁 치열

이용섭 후보 텃밭 지역

강기정·민형배 단일화로 요동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이 일주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강기정·양향자·
이용섭 후보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결선투표제가 도입되고, 이
용섭 후보의 탈당 전력에 대해 10% 감
산이 적용되면서 이들 후보들은 관리당
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10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
거 광주시장 경선에서 관리당원 투표 반
영률이 일반국민 여론조사와 동일하게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관리당원의 표
심 향배가 경선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경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광주지역 민주당 관리당원은 5만여명으
로 알려져 있다.

강기정 후보는 민형배·최영호 전 후
보와의 단일화를 통해 관리당원 경쟁에
서 압도적인 우위를 자신하고 있다. 강
후보는 민·최 후보의 지지세를 고스란
히 흡수하고 자신이 3선 국회의원을 지
냈던 북구 지역도 우세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양향자 후보는 오랫동안 터를 닦아 온
서구지역을 중심으로 세를 불려나가고

있다. 양 후보는 최근 다양한 정책을 내
놓으면서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고, '문
재인 대통령의 영입 인사'라는 점을 앞
세워 표밭을 다지고 있다.

이용섭 후보는 최근 민주당 광주 동남
을지역위원장을 지낸 이병훈 전 후보가
자신의 선거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면서 관리 당원 확보에 탄력을 받
고 있다. 또 구청장과 시의원에 도전하는
관료 출신 후보들의 세를 규합하고 있다.

특히 광산구에서의 강 후보와 이 후보
의 단일화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이곳은
이용섭 후보의 텃밭이지만 민형배 전 광
산구청장이 강기정 후보 단일화에 합류
하면서 판세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또
광산구청 출마자들 사이에서도 표심이
엇갈리고,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여서
각 후보 진영에서 전담팀을 꾸려 대응하
고 있다.

민주당 한 구청장 출마자들은 "강기
정·양향자·이용섭 후보 측에서 매일 번
갈아 가면서 전화를 걸어오고 직접 찾아
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누가 어
느 후보를 지지한다는 소문이 돌면 다른
후보 진영에서 이를 확인하고 흡수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당원확보 경쟁이 뜨겁
다"고 설명했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유채꽃 활짝...노랑게 물든 광주의 봄. 완연한 봄날씨를 보인 10일, 노란 유채꽃이 활짝 핀 광주시 광산구 선운지구 수변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봄을 만끽하고 있다.
/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라도 천년 인물-여수 이순신 ▶18면
KIA의 숨은 전력 '유쾌한 동행' ▶20면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당정,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검토

당정이 5월8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
정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0
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
해 어버이날부터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버
이날에 출근해야 해서 가족 얼굴을 보기 어
렵고, (또) 부모께 죄송한 상황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서 그에 입각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
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논의를 할 예정이
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
보 때 "해마다 가장 많은 국민이 5월의 가
장 중요한 날로 어버이날을 꼽는다. 하지
만, 쉬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 어버이날
은 죄송한 날이 되고 있다"며 "어버이날

■ 5월 황금연휴 열리나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7일 대체휴일	8일 어버이날 임시공휴일 검토		

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
한 바 있다.

올해부터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5월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이어지
는 황금 연휴가 생기게 된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법무법인 이우스 영입인사

저희 법무법인 이우스는 이번에 백승호 변호사(제41대 경찰대학장)를 대표변호사로, 장은백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를 구성원변호사로 새로 영입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법무법인 이우스는 상생과 공익을 위해 더욱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와 범죄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우스
대표변호사 임선숙 이병주
변호사 오세욱 서애련 고영석
강성두 김정호 장은백
김석운 봉세환
공인회계사 정현석

◇백승호 대표변호사
• 광주금호고등학교 졸업
• 전남대 법과대학 졸업
• 제3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3기)
• 강진, 수원중부, 관악경찰서장
• 경찰청 법무과장, 수사과장(총경)
• 강원지방경찰청 차장, 경찰수사연수원장(경무관)
• 경기지방경찰청 제1차장(치안감)
• 전남지방경찰청장(치안감)
• 경찰대학장(치안정감)

◇장은백 변호사
• 광주실례시외고, 고려대 법과대학 졸업
•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4회)
• 서광주세무서 국제심사위원
• 순천향대학교 과학수사대학원 겸임교수
• 대한치과의사협회 법률지원 변호사
• 전남대 법학교실 연구원(전)

■ 광주사무소: 광주 동구 동명로 99 이우스빌딩 대표전화 062(233)-1600 팩스 062(225)-7800
■ 서울본사무소: 서울 서초구 법원리길 1, 501호(서초동, 서호빌딩) 대표전화 02(637)-4496 팩스 02(693)-5006

2018 PINK RUN GWANGJU

A MORE BEAUTIFUL WORLD
AMOREPACIFIC

한국유방건강재단

20by20

상무시민공원
2018년 5월 27일 09시30분 출발

종 목 | 10km / 3km
참 가 비 | 1만원(전액 한국 유방건강재단에 기부됩니다.)
참가인원 | 3,000명
기 념 품 | 기능성 마라톤 티셔츠

참가문의 | 핑크런 사무국(1688 9744)
참가신청 | 홈페이지 www.pinkcampaign.com
접수시작 | 3월26일 ~ 선착순 접수